

2012년 8월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 학위논문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교육론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김 미 경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교육론 분석

Analysis of the Theory of Education
in Plato's *Republic*

2012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김 미 경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교육론 분석

지도교수 염 수 균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 학위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 교육전공

김 미 경

김미경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재영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재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염수균 (인)

2012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서 론	1
제1장 플라톤의 덕	2
1. 국가의 세부분	2
2. 국가의 덕	5
3. 영혼의 세부분	8
4. 인간의 덕	10
제2장 교육 과정	12
1. 음악교육	13
2. 체육교육	19
3. 철학교육	22
제3장 교육 방법	28
1. 소질	29
2. 교육	30
3. 천운	32
4. 교수와 훈련	34
5. 돌러이꿈과 정화와 모방	36

결 론 37

참고문헌

ABSTRACT

Analysis of the Theory of Education in Plato's *Republic*

Kim Mi Kyong

Advisor : Prof. Su-Kyun Youm Ph.D.

Major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is based on Plato's educational ideas. Plato's educational ideas are shown throughout his whole writings, especially his early work up to *The Republic*. The theme of his writings is virtue, which all education aims at. Especially the *Protagoras*, *Menon*, and *Republic* are focusing on the education of virtu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education theories presented by *Republic* by focusing on the education methods.

The paper is divided into 3 chapters and the first chapter will discuss what virtue is in educational purposes by dividing national virtues with human virtues. Also the point that the essence of politics is education will be proven by the fact that the role of politics is to produce noble people.

In accordance with previous stated ideologies and goals of education, chapter 2 presents the selected educational process, which is classified as "Mu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nd "Philosophy education". Of these, musical and physical education are courses in which those produce general guardians and aims at equipping justice, temperance, and courage. While philosophy education is considered a higher form of liberal education where it purposes to teach the virtue of wisdom that a ruler must be equipped with.

Finally, chapter 3 presents methods of education and those are classified the teaching methods for virtues of character, such as justice, temperance, and courage with the methods for virtue of wisdom. Mainly for virtues of character, training or rote teaching methods are used, while the dialectic-based maieutic method are used for virtue of wisdom.

서론

본 논문은 플라톤의 교육사상에 관한 논문이다. 플라톤의 교육사상은 플라톤의 저작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특히 초기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저작의 주제는 주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덕에 관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프로타고라스』와 『메논』, 그리고 『국가』는 덕의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국가』에서 제시된 교육사상을 교육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이를 위해 본문을 3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1장에서는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덕이 무엇인지를 국가의 덕과 인간의 덕으로 나누어서 논의할 것이다. 또한 정치의 역할이 국민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의 본질이 교육임을 밝히고자 한다.

2장은 앞서 밝힌 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 선정되는 교육의 과정이 제시되는데, 이는 세부적으로 '음악교육', '체육교육', 그리고 '철학교육'으로 구분된다. 이것들 중에서 음악교육과 체육교육은 일반적인 수호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정의, 절제, 용기를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 교양 교육과정이라면, 철학교육 과정은 통치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지혜의 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고등 교양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장은 교육방법을 제시하는데, 정의, 절제, 용기와 같은 성품의 덕의 교육방법과 지혜의 덕의 교육방법이 구분된다. 성품의 덕을 위해서는 주로 훈련이나 주입식 교수방법이 사용된다면, 지혜의 덕의 교육방법으로는 변증술을 기초로 한 산파술적 교수방법이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1) 본 논문이 참고로 한 자료는 플라톤의 『국가』로서, 박종현이 번역한 [플라톤의 국가·정체]를 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방법에 관해서는 염수균의 논문 「플라톤의 『국가』에서의 교육방법」에서 제시된 견해를 참고하였다.

제 1장 플라톤의 덕

1. 국가의 세부분

플라톤은 한 나라가 생기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이나 옷, 신발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고 그것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반자 및 협력자들로서 한 거주지에 모이게 되었고, 이 '생활공동체'에 '도시국가(polis)'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이다.²⁾ 또한 당시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선한 삶을 조장하는 것으로 인간존재는 국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만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당시의 국가는 시민을 개선하고 선의 개념에 따라 시민을 덕이 있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교육기관이었다.³⁾ 그리고 국가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국가의 방위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국가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플라톤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의 방위에만 종사하는 수호자 계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부분을 우선 생산자와 수호자로 나누었다. 그리고 수호자들 중에서 우수한 수호자들을 다른 수호자들과 구별하여 통치자로 불렀다. 그 사회에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수많은 서로 다른 경제적, 사회적 기능이 있으며, 노동의 분업이야말로 이를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겼다.⁴⁾ 그는 각각의 계층에 각각에 합당한 덕이 있으며 이들이 국가 안에서 조화를 잘 이룰 때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생각했다.

가. 생산자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도의 나라'⁵⁾와 '호사스런 나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도의 나라에서는 농부, 집짓는 사람, 제화공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장장이들을 비롯한 여러 부류의 장인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 이외에도 소나 양을 치는 목동들도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한 국가에서 부족한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무역상들도 필요하고, 해상 운송에 정통한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인들도 필요하다.⁶⁾

2) 플라톤, 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국가·정체』, (개정 증보판), 서광사, 2005. 369c.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플라톤의 국가·정체』 대신에 『국가』로 표현하고자 한다. 쪽수는 '스테파누스 쪽수(Stephanus pages)'로만 표시한다.

3) 임태평, 『플라톤 철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0. 210쪽.

4) 데이비드 L. 레슬리 스티븐슨 외, 박중서 역,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갈라파고스, 2006. 160쪽.

5) 『국가』, 369d.

플라톤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지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가 모델로 생각하는 국가는 그것들 이상의 것들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국가인데, 그는 그런 국가를 '호사스런 나라'⁷⁾ 또는 염증상태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 나라에서는 침상과 식탁을 비롯한 다양한 가구들, 요리와 향유 및 향료, 기녀와 생과자 또 회화와 자수, 황금과 상아 등과 같은 사치품도 사람들이 이용한다.⁸⁾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사냥꾼, 시인들, 배우들, 합창 가무단들, 연출가들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또한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돌보는 가복(家僕)(敎僕: paidagōgos), 유모, 보모, 시녀들, 이발사 등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⁹⁾

나. 수호자

한 국가가 인구가 불어나서 목축하고 경작하기에 넉넉한 땅을 가지려 할 경우, 이웃 나라의 땅을 빼앗으려 할 것이고, 이웃 나라 사람들도 재화의 끝없는 소유에 매달리게 될 때는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¹⁰⁾ 따라서 국가에는 영토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침략자들에게 대항해서 싸울 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국가를 지킬 수호자가 필요하게 된다. 플라톤은 국가를 잘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방위에만 종사하는 전문 직업 군인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플라톤이 말하는 수호자들은 다른 생산적인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직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며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플라톤은 이러한 수호자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적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감각이 예민해야 하고, 감지된 것을 추적하는 데 날렵해야 하며, 붙잡힌 것과 싸워야 할 때는 힘이 세야한다.¹¹⁾ 또한 수호자들은 심적으로는 걱정적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적과 아군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친근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온순해야 하고, 적에 대해서는 거칠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신들을 스스로 파멸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순하면서 동시에 걱정적인 성품을 지녀야 한다. 플라톤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런 성질을 철학적 성질로 부른다. 따라서 수호자들은 기질상 걱정적이면서 동시에 철학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요약하면 “훌륭하디 훌륭한”¹²⁾ 수호자로 될 사람은 천성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며 걱정적이고 날래며 굳세야 한다.

6) 같은 책, 369d.~371c.

7) 같은 책, 372e.

8) 같은 책, 373a.

9) 같은 책, 373c.

10) 같은 책, 373e.

11) 같은 책, 375a.

다. 통치자

통치자는 수호자들 중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그들은 다른 수호자들을 비롯한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통치자로 불릴 수 있다. 플라톤은 그들을 다른 수호자들과 구별하여 '완벽한 수호자들'¹³⁾로 부르기도 한다. 만일 그들을 통치자로 부른다면 다른 수호자들은 그들의 보조자들 및 협력자로 불릴 수 있다.

플라톤은 통치자들은 연장자들이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소 연소자들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은 통치자들은 수호자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따라서 이들은 나라를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나라를 지키는 일에 가장 슬기롭고 유능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치자들은 더 나아가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¹⁴⁾ 즉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나라에 유익한 것이면 열의를 다해서 하려 들되, 그렇지 못한 것이면 어떻게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그것도 온 생애를 통해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다.¹⁵⁾ 또한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려면 나라를 위한 최선의 것들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어떤 경우에도 내팽개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12) 같은 책, 376c.

13) 같은 책, 414b.

14) 같은 책, 412c.

15) 같은 책, 412e.

2. 국가의 덕

국가의 덕은 훌륭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덕들을 말한다. 그것들에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있는데, 절제와 정의는 모든 시민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덕이며, 용기는 모든 수호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덕이고, 지혜는 통치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덕이다.

가. 지혜

지혜는 통치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덕이다. 지혜롭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별(euboulia)은 일종의 앎(epistēmē)이다. 사람들이 분별 있게 되는 것은 무지(amathia)에 의해서가 아니라 앎에 의해서다.¹⁶⁾ 그런데 그 앎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에 대한 앎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치자들에 요구되는 지혜는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를 아는 지혜를 의미한다. 국가 사회전체에 또는 인간 심성의 모든 면을 포섭하고, 조정하고, 통제하여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된 기술로서 국가경영의 지혜인 것이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가장 훌륭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숙고하는 앎이므로 완전한 수호자, 통치자들의 앎이다.¹⁷⁾

훌륭한 나라 속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앎(지식)이 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로 불리는 것은 목재에 대한 지식이나, 청동으로 만든 기구에 관한 지식과 같이 특정한 분야에 관련한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다. 나라 전체와 관련해서 대내적으로나 다른 나라들과도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숙의 결정해주는 지식에 의해 한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로 불릴 수 있다.¹⁸⁾ 이러한 지식은 나라의 수호술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완벽한 수호자’ 들로 불리는 통치자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다.¹⁹⁾ 이러한 지식이 있는 나라는 분별 있고 슬기로운 나라로 불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들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수호자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나. 용기

한 나라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비겁하거나 용감하다고 해서 이들이 그 나라의 성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 나라가 용기가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어떤 한 부류에 의해서인데, 그 부류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부류들, 즉 수호자들이다. 수호자들이 용기가 있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죽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

16) 같은 책, 428b.

17) 강현경, 「플라톤 윤리사상의 형성과정과 덕」, 동아대학교육대학원, 1998, 45쪽.

18) 『국가』, 428d.

19) 같은 책, 428d.

결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못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플라톤은 용기를 바로 두려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올바른 소신을 보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그 소신은 통치자에게서 교육을 통해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용기란 일종의 보전(soteria)이다. 즉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 두려워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와 관련해서 생기게 된 소신(판단)의 보전이다. 그러한 소신을 ‘언제나’ 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에 처해서도, 쾌락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끝끝내 보전하여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한 나라에서 군인들을 선발하여 음악과 체육에 의한 교육을 하는 것은 두려워할 것들이나 또는 다른 것들에 관해 그들의 소신(판단)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어떤 강력한 고통과 공포, 욕망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 절제

절제는 용기나 지혜와는 달리 국가의 특정 부류가 갖는 성질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 플라톤은 절제를 일종의 협화음(symphonia) 및 화성(harmonia)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어떤 부류가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 적용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 영혼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의 부분이 있는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욕구 부분이 합리적 사유를 따른다는 것을 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절제 있는 국가란 국민들의 욕구가 통치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종속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것을 바로 플라톤은 누가 다스리는가에 관한 의견의 일치라고 표현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도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은 자들 간에 ‘같은 판단(의견)’이 이루어지는 나라야말로 절제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 모두에게 ‘절제함(sophronein)’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절제란 일종의 화성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용기나 지혜는 각각 그 나라의 어느 한 부분에만 있어도 지혜로운 나라나 용기 있는 나라가 되게 하지만, 절제는 나라 전역에 걸쳐있는 것이다. 화음 역시 가장 약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가장 강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합창함으로써 전(全)음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²¹⁾ 즉 ‘한마음 한뜻(한마음 : homonoia)’으로 나라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 성향상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를 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절제라고 할 수 있다.

20) 같은 책, 429d.

21) 같은 책, 432a.

라. 정의

정의도 특정한 부류가 갖추고 있어야 할 덕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걸쳐서 성립하는 하나의 상태로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인간과 사회의 이상적인 상태를 ‘디카이오수네(dikaiosune)’라는 그리스어로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보통 ‘정의’로 번역된다.²²⁾ 플라톤은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소질에 맞는 하나의 일에만 종사하고 소질에 맞지 않는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것에서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치를 하는 일은 통치를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통치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플라톤은 통치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극소수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관은 아리스토크라시(aristocracy), 즉 최선자 정치로 해석된다.

플라톤에서는 이 정의의 덕이 가장 기본적인 덕으로 간주된다. 그에 따르면 정의의 덕에 의해서 절제와 용기, 지혜 등 다른 덕들이 나라 안에 생길 수 있고, 또 이것들이 나라 안에 생긴 이후엔 그것들의 보존이 가능할 수 있다.²³⁾ 정의로운 나라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종사하고, 다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일 사람들이 서로 직분을 교환하게 된다면, 동일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 든다면, 이들의 교환이나 참견이 그 나라에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들 사이의 참견이나 상호 교환(기능의 바꿈)은 그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해악(blabē)이며, 무엇보다도 더한 ‘악행’(잘못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나라에 대한 최대의 ‘악행’(잘못함)은 바로 ‘부정의’(adikia)라고 하는 것이다.²⁴⁾ 따라서 생산자는 생산자의 소질을 갖춘 자들이, 수호자는 나라를 지키는 것에 열심인 자들이, 통치자는 지도하는 것에만 열심인 자들이 맡아야 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고 다른 일이 아닌 그 일에만 집중할 때 정의로운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 곧 개인의 영혼이나 국가의 계급의 각 부분이 원활하게 함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다.²⁵⁾

22) 데이비드 L, 앞의 책, 151쪽.

23) 『국가』, 433c.

24) 같은 책, 434d.

25) 데이비드 L, 앞의 책, 155쪽.

3. 영혼의 세부분

플라톤은 개인의 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의 경우처럼, 개인의 영혼을 세부분으로 나눈다. 그것들은 각각 헤아리는 부분, 걱정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이다.²⁶⁾

가. 헤아리는 부분 (이성적인 부분)

인간의 욕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지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욕구를 제지하는 것은 욕구적인 부분에 의한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동일한 것이 자신의 동일한 부분에 의해서, 동일한 것과 관련해서 동시에 상반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⁷⁾ 그런데 예를 들면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막는 것들은 주로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욕구를 제어하는 영혼의 부분은 이성적 부분으로 말할 수 있다. 즉 영혼이 욕구하고 배고파하며 목말라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욕구들과 관련해서 흥분 상태에 있는 부분을 비이성적이며 욕구적인 부분으로 부를 수 있다면, 영혼이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제어하는 분(면)을 영혼의 헤아리는(추론적, 이성적 : logistikon) 부분이라 부를 수 있다.²⁸⁾

나. 걱정적인 부분 (기개의 부분)

플라톤은 우리 영혼의 다른 부분으로 걱정적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걱정은 우선 개와 말과 함께 인간에게 공통적인 대담과 용맹에 속하는 그런 요소인 용기의 불가결한 기초인 것으로 이해되는 개념이다.²⁹⁾ 걱정적인 부분은 주로 영혼이 분노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선 욕구들에 대항해서 다툰다는 점에서 욕구적 부분과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가령 어떤 사람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먹어서는 안된다는 이성적 판단을 거스려서 먹도록 강요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꾸짖으면서 자기 안에서 그런 강요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개한다. 이렇듯 걱정적인 부분은 주로 이성과 한편이 되어서 욕구적인 부분과 대립한다. 해서는 안된다는 이성적 판단이 있는 경우, 걱정적 부분이 욕구의 편을 드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³⁰⁾ 어떤 사람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짓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의 걱정은 끓어오르며 사나워질 것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한편이 되어 싸우게 된다.³¹⁾ 따라서 걱정적인 부분은 욕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아리는(이성적인) 부분을 위해 무장한다고 할 수 있다. ³²⁾

26) 『국가』, 441a.

27) 같은 책, 439b.

28) 같은 책, 439d.

29) 임태평, 앞의 책, 275쪽.

30) 『국가』, 440b.

31) 같은 책, 440d.

걱정적 부분은 욕구적인 부분과 다르기도 하지만 헤아리는 부분과 다르기도 하다. 그 부분이 헤아리는 부분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아이들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이성적인 부분이 발휘되기 전의 상태에도 걱정으로 가득할 수 있다. 이것은 짐승들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어린아이를 상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 아이의 특유의 쾌활함, 기쁨과 좌절, 고집, 그리고 때때로 공격성과 지분거림 등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통해 이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³²⁾ 따라서 헤아리는 부분과 관계없이 걱정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헤아리는 부분 없이도 걱정은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걱정은 인간의 본성에서의 다루기 힘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올바르게 교육된다면 참된 용기가 될 수 있지만 배타적으로 교육됐을 경우 맹목적인 잔인성, 험상성, 성마름 아니면 방자함으로 타락할 수 있다.³⁴⁾

다. 욕구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은 목마를 경우 물을 욕구한다든지, 배고플 경우 음식을 욕구하는 것과 같이 주로 신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에는 매우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것들인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관한 욕구 그리고 성적인 욕구들이 대표적인 것이다.³⁵⁾ 욕구들 가운데는 불법적인 것들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이성을 동반한 더 나은 욕구들에 의해서 억제됨으로써 아주 없어져 버리거나 소수가 약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강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억제되지 못하고 어리석거나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³⁶⁾

지혜로우며 영혼 전체를 위한 선견지명을 지니고 있는 ‘헤아리는 부분’ 이 지배하는 것이 적합하며, ‘걱정적인 부분’ 은 이에 복종하며 협력자로 되는 게 적합하다. 걱정적 부분과 헤아리는 부분이 잘 양육되어 제 할 일들을 배우고 교육받게 되면, 이것들은 욕구적인 부분을 지도하게 된다. 욕구적인 부분은 각자 영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성향상 재물에 대한 만족을 모른다. 이른바 육체적인 쾌락들로 가득하고 강대해진 나머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 부분을 자기에게 종속시켜 지배하려 든다. 따라서 욕구적 부분이 삶 전체를 엮는 일이 없도록, 그 두 부분이 함께 욕구적 부분을 감시하게 된다.³⁷⁾

32) 같은 책, 441a.

33) 데이비드 L, 앞의 책, 147쪽.

34) 임태평, 앞의 책, 276쪽.

35) 『국가』, 580e.

36) 같은 책, 571c-d.

37) 같은 책, 442b.

4. 인간의 덕

플라톤은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지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이 잘 교육되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때이다. 그러한 이성적 부분은 영혼의 세 부분 각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 부분으로 이뤄진 전체를 위해서 유익한(좋은) 것에 대한 앎(episteme 지식)을 그 자신 속에 지니고 있다.³⁸⁾ 이러한 지혜는 각각 개인을 위해 좋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구하게 하며, 또한 정의롭게 행위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정의로운 행위를 관할하는 앎을 지혜(sophia)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 행위를 하게 하는 의견(판단:doxa)은 무지라고 말할 수 있다.³⁹⁾

나. 용기

국가에서 용기란 일종의 보전을 의미하였다. 즉 수호자들이 법에 의한 교육을 통해서 두려워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고, 이와 관련해서 생기게 된 소신(판단)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소신을 ‘언제나’ 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에 처해서도, 즐거움에 처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끝끝내 보전하여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⁰⁾ 개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을 용기 있게 하는 부분은 걱정적 부분인데, 이성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준 것을 고통이나 유혹 속에서도 끝끝내 보전하게 될 때 ‘용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⁴¹⁾

다. 절제

어떤 사람을 절제 있는 사람이라 부르게 되는 것은 영혼의 욕구적 부분이 이성적 부분에 잘 복종하여 어떤 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을 때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세 부분의 우의와 화합에 의해서, 즉 모든 부분이 헤아리는 부분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나머지 두 부분이 반발하지 않고 복종할 때에 가능하다. 그것은 나라나 개인에게 모두 마찬가지다.⁴²⁾

38) 같은 책, 442c.

39) 같은 책, 444a.

40) 같은 책, 429d.

41) 같은 책, 442c.

42) 같은 책, 442d.

라. 정의

사람이 정의롭게 되는 것도 나라가 정의롭게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즉 영혼의 각각의 부분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다른 부분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때 개인은 정의롭게 된다. 즉 정의란 자기 안에 있는 각각의 것(영혼의 세부분)이 남의 일들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영혼의 각 부류가 서로 참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서 성립한다. 만일 욕구적 부분이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성의 부분을 지배할 경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러한 사람은 국가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관여함으로써 국가를 타락하게 만든다.

이와는 달리 부정(不正)은 영혼의 세부분간의 일종의 내분이며 자신의 본분에 맞지 않은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⁴³⁾ 이러한 상태는 단지 부정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무절제이기도 하고 비겁한 것이기도 하고 무지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덕 전체가 결여되어 있는 악덕의 상태로 볼 수 있다. 정의가 가장 기본적인 덕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우나 국가의 경우나 마찬가지다.⁴⁴⁾

43) 같은 책, 444b.

44) 같은 책, 444c.

제 2장 교육 과정

플라톤이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은 통치자를 포함해서 수호자 일반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통치자와 수호자는 넓은 의미에서 수호자라 불리며,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호자 일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을 교육하는 과정은 훌륭한 수호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점에서 교양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양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교육과정의 목적은 앞장에서 밝힌바 있는 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싸움하는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은 『국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은 크게 기본교육 과정과 고등교육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교육 과정은 수호자 일반을 대상으로 정의, 절제, 용기를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이며 주로 음악과 체육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교육 과정은 지혜의 덕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이며, 통치자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철학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철학 교육은 주로 수학과 기하학 같은 수학적 학문들과 변증술로 구성된다.

1. 음악 교육

가. 설화 (mythos)

(1) 내용

고대 그리스에서 체육은 몸을 위한 교육과정이며, 음악은 영혼(마음: psychē)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간주된다. 가장 먼저 실시되는 교육은 음악이다. 여기에서 음악이란 말은 폭넓은 개념으로서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와 같은 시들도 그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설화들도 음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설화는 가장 먼저 시작되는 교육 자료로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의 영혼은 때문지 않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가 새겨주고 싶은 인상이 가장 잘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⁵⁾ 또한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것들은 좀처럼 씻어 내거나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덕의 함양이라는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들려줘야 한다.⁴⁶⁾ 플라톤이 시나 문학 등에 구현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 용기, 진실, 절제 등의 올바른 도덕성의 원리였다. 이러한 도덕성의 표현을 교육 받을 때 어린 아이들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신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거짓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음으로써 사회에서 동포애를 가질 수 있다. 즉 초등 교육은 인격의 형성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⁴⁷⁾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설화를 만들어 내는 자들을 감독해야 하며 그들이 짓는 것이 훌륭한 것이면 받아들이되 그렇지 못한 것이면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받아들인 것들을 보모들과 어머니들에게 주어, 그들이 그것들으로써 아이들의 영혼을 형성(plattein)⁴⁸⁾ 하도록 해야 한다.⁴⁹⁾

(가) 신에 관하여

아이들에게 들려줄 설화의 내용 중에는 신과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는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 등 여러 시인들이 구성해낸 것들로서 좋지 못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신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음모를 꾸미며 싸움질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들려줘서는 안된다. 신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야 한다.

‘신들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규범은 이렇다. 그것이 서시시이든, 서정시이든,

45) 같은 책, 377b.

46) 같은 책, 378e.

47) 최우영,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타난 도덕교육론」, 계명대학교, 1994. 58쪽.

48) 『국가』, 377c. 이 말은 플라톤적인 생각을 잘 드러내 주는 말이기도 하다.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건강하게 갖도록 습성화함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의 틀을 건전하게 형성하게 하는 것이 이 기본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인격이나 성격은 그렇게 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49) 같은 책, 377c.

또는 비극시이든 간에 언제나 신을 신인 그대로 묘사해야 한다. 우선 신은 참으로 선하므로(좋으므로) 그렇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좋은 것’ (훌륭한 것, 선한 것)들은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들의 원인이고 나쁜 것들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신은 선하기 때문에(훌륭하기에)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소수의 좋은 것의 원인일 뿐이다. 따라서 신들과 관련해서 호메로스나 다른 시인이 생각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한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⁵⁰⁾ 신은 항상 올바르게 좋은 일을 하며 신에게서 벌을 받은 자들은 신에게 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응징을 당함으로써 이롭게 된 것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따라서 시인들이 신에게 벌을 받은 자들은 비참하게 됐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자가 바로 신이었다고 이야기해선 안된다.⁵¹⁾ 플라톤에 있어서 신은 실제로 선하고 신 그 자체가 선의 원인일 뿐이지 악의 원인일 수 없다.⁵²⁾

또한 신이 변덕스러운 것으로 묘사해서도 안된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거나, 또는 기술에 의해서 생긴 것이거나 그 어떤 것이든 훌륭한 상태에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한 변화를 가장 작게 입는다. 신에 속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따라서 신은 다른 것에 의해 변화되어 여러 가지 형상을 갖게 될 가능성이 가장 적다. 신은 아름다움과 훌륭함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신이 변화한다고 한다면, 나쁜 쪽으로 변한다는 것이므로 신이 자신을 바꾸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각각의 신은 저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아름다우며 훌륭하여서, 언제나 단순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시인도 신이 온갖 다른 모습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해선 안된다.

또한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신은 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이 필요할 정도로 어리석거나 미친 자들 중에는 신들의 친구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성(神聖 : to daimonion)과 거룩한 것(신적인 것: to theion)은 모든 면에서 거짓됨이 없는 것이다. 신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전적으로 단순하며 진실하면서도, 자신을 바꾸지도 남들을 속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신들을 자신들을 변모시키는 마법사로 묘사해서도 안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해서도 안된다.⁵³⁾

(나) 죽음에 관하여

아이들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이 저승의 일들을 험하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⁵⁴⁾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무섭고 두려운 이름은 거부되어야만 한다. 이를테면 저승에 흐르는 강을 ‘코키토스’ (울부짖음의 강)라든지 ‘스틱스’ (혐오의 강)로 부른다든지, 죽은 이들을 ‘지하 세계에 사는 자들’ 이라든지 ‘말라빠진 송장들’ 등으로 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와 같이 그 이름

50) 같은 책, 379d.

51) 같은 책, 380c.

52) 임태평, 앞의 책, 294쪽.

53) 『국가』, 383a.

54) 같은 책, 386b.

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서리를 치게 할 것들은 거부되어야 한다.⁵⁵⁾

또한 이름난 인물들의 통곡이나 비탄도 들려줘서는 안된다.⁵⁶⁾ 훌륭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그의 동료가 죽었다고 해서 마치 무서운 일을 당하기라도 한 듯이 통곡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불행한 사태가 그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며 가장 잘 견뎌낼 것이다.⁵⁷⁾ 따라서 신들이나 영웅들을 비탄하며 통곡하는 것으로 그려서는 안된다.

(다) 웃기는 이야기

수호자들은 웃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된다. 어떤 사람이 심한 웃음에 자신을 내맡길 경우, 그의 성품에 강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나 신들을 웃음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누군가가 묘사하면,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⁵⁸⁾

(라) 방탕한 이야기

수호자들에게는 절제의 덕이 요구된다. 특히 주색이나 먹는 것과 관련된 쾌락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⁵⁹⁾ 따라서 시인들이 영웅이나 신들을 술독에 빠져 있거나, 정욕에 빠져 있고, 뇌물을 받거나 재물을 좋아하는 자들로 묘사하게 내버려두어선 안된다.⁶⁰⁾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용졸한 행위를 했다거나, 신들 및 인간들에 대해 거만하게 굴었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⁶¹⁾ 또한 테세우스와 페이리투스가 자신들의 신붓감을 납치하려 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⁶²⁾

(마) 인간에 관하여

시인들은 정의롭지 못한 자들은 다수가 행복한 반면에, 정의로운 이들은 다수가 비참하고, 또한 정의롭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들키지만 앎는다면 이득이 되지만, 정의로움은 남에게는 좋은 것이되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말해서는 안되고 이와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한다.⁶³⁾

(2) 이야기 전달 방식

설화의 내용 다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설화를 전달하는 '이야기 투(말투 :

55) 같은 책, 387c.

56) 같은 책, 387d.

57) 같은 책, 387e.

58) 같은 책, 389a.

59) 같은 책, 389e.

60) 같은 책, 390a-e.

61) 같은 책, 391c.

62) 같은 책, 391d.

63) 같은 책, 392b-c.

lexis)’에 대해서 고찰해야 한다. 이야기의 전달 방식으로는 모방을 통한 방식과, 모방이 없이 서술식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⁶⁴⁾ 모방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말이나 행위를 마치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흉내 내면서 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 투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을 자신이 최대한 닮도록 한다.⁶⁵⁾ 그렇지만 주인공 흉내를 내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서 서술식으로 전달한다면 이야기 진행은 모방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비극이나 희극은 주로 모방을 통해서 전달되고, 서사시의 경우는 주로 시인 자신이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모방을 섞어서 하기도 한다.⁶⁶⁾

플라톤은 가능한 모방을 적게 이용하는 전달 방식이 좋은 전달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수호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서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그들의 직무와 어울리는 말투나 행동거지를 모방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모방하게 한다면 탁월한 수호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모두 잘 모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⁶⁷⁾ 따라서 수호자들이 다른 일체의 기술 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자유를 만드는 일에만 종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들은 그 밖의 어떤 것에도 매달려서는 안되며 또한 어떤 것도 모방해서는 안된다. 물론 모든 종류의 모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용감하고 절제 있고 경건하며 자유로운 사람들의 말과 행위는 어릴 때부터 모방해야 한다. 반면 비굴하거나 창피스러운 짓을 모방해선 안된다. 모방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방이 젊은 시절부터 오래도록 계속되면, 몸가짐이나 목소리에 또는 사고에서 습관이나 성향으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이다.⁶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은 이야기 진행 중에 훌륭한 사람의 어떤 말투나 행동의 대목에 이르면,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기라도 한 듯이 그렇게 말해야 하며 그런 모방에 대해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 곳곳하게 슬기롭게 행동할 때 특히 그 사람을 모방해야 하며, 그 사람이 질병이나 사랑으로 또는 만취나 다른 어떤 불행한 일로 좌절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 모방을 피해야 한다.⁶⁹⁾

나. 노래와 서정시가

노래(melos)는 세 가지, 노랫말과 선법 그리고 리듬으로 이뤄졌다. 노랫말은 설화에서 말한 것들과 같은 틀(typos)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선법과 리듬은 노랫말을 따라야 한다.⁷⁰⁾ 플라톤은 음악(詩歌: mousikē)을 통한 교육(양육)중에서 노래 교

64) 같은 책, 392d.
 65) 같은 책, 393c.
 66) 같은 책, 394c.
 67) 같은 책, 395a.
 68) 같은 책, 395d.
 69) 같은 책, 396d.

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리듬과 선법(화음)이 영혼의 내면으로 가장 깊숙이 젖어 들어 영혼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다는 것이다. 즉 영혼의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음악 교육 과정에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화음과 리듬을 들려주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화음과 리듬은 영혼의 내면에 가장 잘스며 들어가서 영혼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아서 ‘좋은 모습’을 준다고 말한다.⁷¹⁾

선법에는 우선 비탄조가 있는데 혼성(混成) 리디아 선법이나 고음 리디아 선법 등이 그에 속한다. 이러한 것들은 남자들 뿐 아니라 훌륭해야만 되는 여인들에게도 무용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만 한다.⁷²⁾ 유약하고 주연(酒宴)에 맞는 선법에는 이오니아 선법과 리디아 선법 가운데 느슨한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전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선법이다. 하지만 도리아(도리스) 선법과 프리기아 선법은 남겨 놓아야 한다. 도리아 선법은 전투행위나 모든 어려운 업무에 있어서 용감한 사람의 어조와 억양을, 그리고 모든 사태에서 자신의 불운을 깨끗하고 참을성 있게 막아내는 사람의 어조와 억양에 어울리는 선법이다. 그리고 프리기아 선법은 평화적이며 자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거만하지 않고 절제 있고 절도 있게 행동하며 결과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의 어조와 억양에 어울리는 선법이다.⁷³⁾ 이러한 노래나 서정 시가를 위해서는 모든 선법이 연주될 수 있는 현이 많은 악기는 필요하지 않다.

선법 다음으로는 리듬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하지만 플라톤은 어떤 리듬이 어떤 삶을 모방해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다루지 않는다.⁷⁴⁾ 다만 그와 관련된 원칙으로서 우리는 복잡 미묘한 리듬이나 온갖 종류의 운율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말한다.

다. 시 이외의 다른 제작품들

음악 교육은 좋은 말, 좋은 화음, 좋은 모습, 좋은 절도 등과 함께 좋은 영혼의 상태를 가져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그림 그리는 것이나 그와 같은 종류의 기술들, 그리고 방직술과 장식술, 건축술과 그밖에 도구들을 만드는 일들에도 있으며 신체나 식물들의 본성에도 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안에는 좋은 모습이나 나쁜 모습이 들어있는데 나쁜 모습과 나쁜 리듬, 나쁜 조화는 나쁜 말과 나쁜 상태의 형제이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은 그와 반대되는 것, 즉 절제 있고 좋은 영혼의 상태의 형제들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인들만 감독해서 그들의 시 속에 좋은 영혼의 상태의

70) 같은 책, 398d.

71) 염수균, 「플라톤에 있어서 탁월성의 교육가능성에 관한 연구 - 『프로타고라스』 『메논』 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184쪽.

72) 『국가』, 398e.

73) 같은 책, 399c.

74)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 논의를 피하고 다몬에게 물어볼 것을 제안한다. 같은 책, 400b. 박종현은 다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다몬은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인으로, 초기의 주요 음악 이론가들 중의 한 사람이다. 프로디코스의 제자였으며, 페리클레스의 교사였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존경을 받았다”

모상⁷⁵⁾을 집어넣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술자들도 동물의 상이나 건물이 나 다른 제작물들을 만들 때 나쁜 모습을 집어넣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수호자들이 마치 나쁜 풀밭에서처럼 나쁜 것의 모상 속에서 교육되면서 나날이 조금씩 많이 뜯어 먹어서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의 큰 나쁜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넣지⁷⁶⁾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의 본성을 그려낼 수 있는 기술자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좋은 작품들로부터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살면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마치 미풍이 좋은 지역으로 부터 건강을 가져다주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 비슷하고 친밀하며 조화되는 것으로 가게 된다.⁷⁷⁾

라. 음악 교육의 목적

음악 교육의 목적은 훌륭한 품성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플라톤은 음악 교육에 대해서 훌륭하게 된 품성의 특성을 우아함으로 표현한다. 즉 어떤 사람이 음악에서 옳게 교육을 받는다면 우아한(고상한) 사람으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훌륭한 것과 훌륭하지 않은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알아볼 것이며,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라도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고 좋아해야 할 것은 좋아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아름다운 것들은 칭찬하며 기쁘게 영혼 속에 받아들임으로서 스스로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으로 된다. 일찍이 어려서부터 그는 논거(이론)도 알 수 있기 전에 추한 것들은 비난하고 미워하기를 옳게 하다가, 나중에 그에 대한 논거를 접하게 되면 그 친근성 덕에 그걸 알아보고는 반감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음악 교육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⁷⁸⁾

플라톤은 단지 음악 교육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철학 교육을 통해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 사람들까지도 '음악적인' 사람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적인 사람은 완전한 교양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절제, 용기 등 고매한 것들과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어느 곳에 들어있든 그것들을 분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고매한 것들 각각의 진상을 파악하여 그것들 자체든 그것들의 우상이든 그리고 그것들이 사소한 것에 들어있든 중대한 것에 들어있든 그것들을 분간해 내는 일의 본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⁷⁹⁾

75) 같은 책, 401b.

76) 같은 책, 401c.

77) 같은 책, 401d.

78) 같은 책, 402a.

79) 같은 책, 402c.

2. 체육 교육

체육 교육의 목적은 좋은 신체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신체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영혼을 갖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좋은 영혼이 될 경우에만, 좋은 신체를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좋은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 음식

좋은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플라톤은 좋은 영혼에 필요한 음악에서 복잡한 화음과 곡조를 가진 음악을 피하고 단순하고 절도 있는 음악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신체를 위해서는 단순한 식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다양성(poikilia)은 음악의 경우에는 무절제를 낳고 체육의 경우에는 질병을 낳는 데 비해, 단순성(haplotēs)은 음악의 경우에는 절제를 낳고 체육과 관련해서는 건강을 낳는다.⁸⁰⁾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라쿠사이식 요리나 시켈리아식 요리처럼 복잡한 요리⁸¹⁾를 피해야 하고 가능한 양념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맛이 좋은 아티카 지방의 과자들도 금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플라톤은 편의성의 이유로 삶은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를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삶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갈 때에도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만 구운 고기의 경우에는 불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⁸²⁾

나. 의술

의술은 두가지 종류로 구별된다. 하나는 질병을 낮게 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의술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을 낮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술이다. 플라톤은 전자의 의술은 필요하지만 후자의 의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경우 몸에 대한 지나친 보살핌을 요구하여 일상적인 삶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다. 특히 그것은 어떤 종류의 공부나 자기 수련도 힘들게 만든다. 그리하여 공부나 자기 수련의 과정 중에서 머리가 빠개질 듯한 아픔이나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경우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이유를 좋지 않은 신체의 상태에서 찾지 않고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철학에 그 탓을 돌리기도 한다.⁸³⁾

플라톤은 전자의 경우를 대표하는 의사를 아스클레피오스로 보고 후자의 의술을 대표하는 의사를 헤로디코스로 본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선천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80) 같은 책, 404e.

81) 같은 책, 404d.

82) 같은 책, 404c.

83) 같은 책, 407c.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부위에 병을 갖게 되었을 경우, 약과 수술을 통해서 병을 몰아내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나라 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반면에 선천적으로 병약하거나 무절제한 생활을 하여 안으로 속속들이 병이 든 몸에 대해서는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반면 헤로디코스는 그러한 몸에 대해서도 접생(식이요법)에 의해 조금씩 배설케 하며 투약함으로써 오래 살 수 있는 의술을 개발하였다. 플라톤은 그러한 의술은 환자들로 하여금 한심한 인생을 길게 살도록 하고, 또한 그와 같은 자식을 낳도록 한다는 이유로 비난한다. 그에 따르면 아스클레피오스는 선천적으로 병약하고 무절제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남들을 위해서도 사는 것이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설사 그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여도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⁸⁴⁾

다. 체조와 운동

일반적으로 체육 교육에서 대표적인 것은 체조와 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플라톤은 『국가』에서 체조와 운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체육교육 일반의 목적은 좋은 신체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음악 교육의 목적과 같이 좋은 영혼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음악 교육을 통해서 영혼의 헤아리는(이지적) 부분이 강화되고, 체육교육을 통해서 영혼의 걱정적(기개적) 부분이 강화된다.

라. 음악과 체육의 조화의 필요성

훌륭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혼의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교육과 체육 교육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일생 동안 체육만 접하고 시가는 접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 반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순전히 체육만 해온 사람들은 ‘필요(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사나워지게 되는 반면, 음악만 해온 사람들은 지나치게 부드럽게 된다. 기개적인 부분은 옳게만 양육되면 용감해지는 것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키워지면 경직되고 거칠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이지적 부분이 너무 느슨해지면 지나치게 부드러워지지만, 훌륭하게 양육될 경우에는 온순하고 단정하게 된다.⁸⁵⁾ 플라톤은 음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인격형성에 폐단으로서 작용된다고 하며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는 것이 체육의 본래적 기능이라고 본다. 음악은 특히 영혼의 이성적 성능을 눈과 귀의 기관을 통하여 교육하며, 체육은 육체적 훈련을 통해 영혼의 기개적 성능을 교육한다.⁸⁶⁾ 따라서 수호자들은 성향상 이들 양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양면

84) 같은 책, 407d.

85) 같은 책, 410e.

86) 최정근, 「플라톤의 이상국가론과 교육사상」, 『새마을연구』, 한국교원대학, 1991, 71쪽.

이 조화를 이룬 사람의 영혼은 절도 있고 용감하다. 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비겁하거나 사납다.⁸⁷⁾

음악 교육의 참된 기능은 영혼이 가진 욕망을 바른 것으로 채워주고 영혼의 욕망에는 고귀함을, 사랑에는 아름다움을 불어넣어 주며 지각을 맑게 하고 정서를 세련되고 균형있게 해 주는데 있다. 하지만 영혼이 다른 뭔가에 의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진실로 ‘음악적’ 이고 ‘조화로운’ 상태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체육은 신체단련을 통해 기개의 요소를 발달시키고 교육하는 것이다. 기개는 스스로 이성과 결합하려는 본성을 가지나, 이 성향이 굳어지려면 진정한 훈련을 요구한다.⁸⁸⁾ 따라서 음악과 체육은 각각 영혼과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개적인 면’ 과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 그 둘을 위해서 곧 그 둘이 ‘적절할 정도’ 만큼 조장되고 이완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⁸⁹⁾

87) 『국가』, 411a.

88) 최우영, 앞의 논문. 55쪽.

89) 『국가』, 412a.

3. 철학 교육

가. 철학 교육의 목적

음악과 체육 교육은 훌륭한 영혼의 성품을 만들어 주는 교육이다. 이 교육들을 통해 훌륭한 성품이 갖춰질 경우, 용기와 절제의 덕이 있으며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교육만으로 아직 지혜로운 사람이 되진 못한다. 철학 교육은 지혜의 덕을 갖춰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과 체육 교육이 수호자들을 위한 교육이라면, 철학 교육은 수호자들 가운데 통치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호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지휘하고 누군가는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통치자는 바로 지휘를 맡은 수호자로서 성격상 수호자들 가운데서 가장 수호자이어야 한다.⁹⁰⁾ 그들에게 특별하게 요구되는 덕은 지혜인데, 플라톤에 따르면 지혜의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의 덕은 바로 국가 전체에 있어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말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좋은 의 이데아’가 ‘가장 큰(중요한) 배움’이며, 이 이데아 덕분에 올바른 것들도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유용하고 유익하게 된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이데아를 모른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⁹¹⁾ 좋은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실제로 정의로운지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의롭게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좋은 경우에는 가능한 그것이 실제로 좋은 것인지를 따져서 밝히려고 한다. 즉 좋은 것의 경우에는 가능한 ‘사실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그런데 플라톤에서는 사실로 그런 것들에 대한 앎을 인식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단순한 올바른 의견 또는 올바른 판단과 구별한다.⁹²⁾ 플라톤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서 탁월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단순히 올바른 의견만 갖고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맹인이 길을 안내하는 것에 비유한다.

나. 교과 과정

어떤 것에 대하여 단순한 올바른 의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접 보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플라톤은 좋은 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 과정을 바로 좋은 의 이데아가 있는 곳으로 피교육자의 이성을 인도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의 인간의

90) 같은 책, 412c.

91) 같은 책, 505a.

92) 같은 책, 505d.

영혼은 진정한 존재인 이데아들이 아니라, 물질적인 대상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으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적인 대상으로 향해있는 그 사람들의 이성을 그 대상에서 돌려 이데아들로 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성 즉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기관을 영혼 전체와 함께 생성계로부터 진정한 존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돌려서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밤과도 같은 낮에서 진짜 낮으로 향하는 ‘영혼의 전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진정한 존재로 향한 등정(오름)’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⁹³⁾ 그리고 그 전 과정을 철학, 즉 지혜의 사랑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식을 갖게 하는 과정은 ‘영혼 안에 지식(인식)이 있지 않을 때 미처 보지 못하는 눈에 시각을 넣어 주듯, 자신들이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다.⁹⁴⁾ 그 인식은 각자가 영혼 안에 있는 인식 능력을 통해서 직접 볼 때만 각자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이를테면 눈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향할 때 몸 전체와 함께 돌려야만 하는 것처럼, 그 인식 능력도 영혼 전체와 함께 생성계에서 전환해야만 한다. 그 과정은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밝은 것, 즉 좋음의 이데아를 관상하는 것에게 까지 이르게 된다.⁹⁵⁾

(1) 수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 등 수학적 학문들은 20세까지 각각 별도로 교육을 시킨 다음, 20세부터 10년 동안 그것들 전체를 집중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배우도록 한다. 이러한 과목들은 학생들의 추리능력을 계발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목적을 위해 채택된다.⁹⁶⁾

플라톤은 교과들 가운데 생성되는 것에서 진정한 존재가 있는 방향으로 영혼의 시선을 돌려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로 가장 먼저 수학을 제시한다.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생성 영역(가시적) 대상에서부터 존재의 세계(가시적 존재), 즉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때 생성영역에 매몰된 영혼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학이라는 것이다. 수학은 모든 기술과 지식 그리고 모든 형태의 사고가 이용하는 공통의 것으로 모두가 맨 먼저 배워야 하는 학문이다.⁹⁷⁾ 따라서 법으로 정해서, 통치자가 될 사람들로 하여금 산술을 익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역상이나 소매상들처럼 사고파는 걸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전체의 ‘방향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⁹⁸⁾ 그렇기 때문에 ‘지성에 의한 이해(앎)’만으로 수들의 본성(성질:physis)에 대한 고찰에 이르게 될 때까지 해야 한다.⁹⁹⁾ 수학은

93) 같은 책, 521c.

94) 같은 책, 518c.

95) 같은 책, 518c-d.

96) 임태평, 앞의 책, 297쪽.

97) 『국가』, 522c.

98) 같은 책, 525c.

영혼을 강렬하게 위쪽으로 인도하여 수들 자체에 관하여 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¹⁰⁰⁾ 즉 이 교과는 영혼으로 하여금 진리 자체를 위해 ‘지성에 의한 이해(앎)’ 자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¹⁰¹⁾

(2) 기하학

플라톤이 수학에 이어 통치자를 기르기 위한 두 번째 교과로 제시한 것은 기하학(geometria)이다. 기하학이 다루는 대상은 생성, 소멸하는 물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념적인 것들로 ‘언제나 있는 것(영원한 실재)’이다. 따라서 기하학에 대한 교육은 영혼을 진리로 이끄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¹⁰²⁾ 기하학을 통해 직선이나 원, 사각형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곧은 직선이나, 둥근 원이나, 네 각이 똑같은 사각형은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가리켜 곧으니 똑같으니 하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사치를 말할 뿐이지, 보다 엄밀한 기준에서 말하자면 결코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연역적 논증을 통해 기하학적인 개념들을 확실하게 증명해 낼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썸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아무리 모호하고 가변적이라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산술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물질적인 대상과는 간접적으로 유사한, 분명히 정의되고 불변하는 수학적 대상, 즉 유형, 혹은 ‘형상’을 이해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우리의 정신을 지각 가능한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수학적 교과를 추천하였다.¹⁰³⁾

또한 기하학은 전쟁과 관련해서 꼭 배워야만 하는 교과이기도 하다. 군대의 야영이나 주둔, 지역의 점령, 군대의 집결과 분산 그리고 전투 자체와 진군에 있어서 취하게 되는 그 밖의 많은 대형과 관련해서도 기하학에 정통한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간단한 부분적인 기하학이나 계산(산술)으로도 충분하다.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기하학을 배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하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의 이데아’를 더 쉽게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⁴⁾

(3) 천문학

다음으로 플라톤이 제시하는 교과목은 천문학이다. 천문학은 영혼으로 하여금 위쪽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데,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도록 하기 때문은 아니다. 별들에 대한 시각적 경험은 오히려 생성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써 그것을 보는 것이 위를 보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뒤로 젖히고 천장에 있는 장식물들을 보고서 뭔가를 배우게 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육체적인 눈이 아닌 ‘지성에

99) 같은 책, 525c.

100) 같은 책, 525d.

101) 같은 책, 526b.

102) 같은 책, 527b.

103) 데이비드 L, 앞의 책, 140쪽.

104) 『국가』, 526e.

의한 이해(알)’로 고찰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천문학을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우려면, 사람들이 오늘날 배우고 있는 방식과는 반대로 배워야 한다. 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것들이라고 믿어지지만 참된 것들에는 미치지 못한다. 천문학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천체들이 보여주는 감각 경험적인 사실에 관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경험적인 사실의 배후에 있는 운동 법칙으로써 그것은 이성과 추론적 사고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지, 시각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다.¹⁰⁵⁾ 따라서 하늘의 장식은 그것들과 관련된 배움을 위한 본보기로만 이용해야 한다.¹⁰⁶⁾ 즉 우리가 천문학을 통해서 영혼의 슬기로운 부분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기하학을 했던 것처럼 천문학도 가시적인 대상 속에 구현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¹⁰⁷⁾

(4) 화성학

‘움직이는 운동’ (phora)¹⁰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¹⁰⁹⁾ 이 가운데 천체의 운동에 관한 학문이 천문학이라면, 화성학은 화음과 불협화음을 내는 소리들에 관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조화로운 천체 운동의 원형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또한 화음을 만드는 음들 사이의 관계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천문학을 철학교육 과정 속에 포함시킨 것은 천체운동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이성적 법칙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학을 포함시킨 것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성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화성학에서는 협화음에 들어 있는 수(數)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왜 협화음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5) 변증술

플라톤은 수학,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 등의 학문들이 물질세계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사유의 세계로 전환시킨다고 생각한다. 감각의 세계를 이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학문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학적 학문은 가시계(可視界)에서 가지계(可知界)로, 어둠에서 동굴밖으로 끌어내주는 학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⁰⁾

수학적 학문에 대한 교육이 끝나는 30세부터 변증술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다. 변증술은 철학교육에서 핵심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플라톤은 수학적 학문들을 서곡(序曲, 서론: prooimion)으로 표현하고 변증술을 ‘본 악곡(本樂曲, 주제主劑: nomos)’으로 표현한다.¹¹¹⁾ 변증술은 수학적 학문들과는 달리 경험적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

105) 같은 책, 529d.

106) 같은 책, 529e.

107) 같은 책, 530c.

108) 헬라스 말로는 ‘phora’는 장소적 이동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운동은 ‘kinesis’로 표현한다. 같은 책, 530d, 주석 48.

109) 같은 책, 530d.

110) 신득렬, 『교육사상가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185-186쪽.

111) 『국가』, 531d, 532a.

고 오직 ‘이성적 논의’ 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수학적 학문들을 통해 밝혀진 존재에 대한 사실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들 전체에 관통해있는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들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궁극적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플라톤은 그것을 모든 것의 원리(arche), 혹은 무가정(無假定)의 것이라고 표현한다.¹¹²⁾ 그것이 바로 ‘좋은 이데아’ 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변증술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만 가정들을 [하나하나] 폐기하고,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리 자체, 즉 좋은 이데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증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의 것의 본질(존재, 실재성: ousia)에 대한 설명을 해낼 수 있게 된다.

플라톤은 수학적 학문을 포함한 철학 교육과정 전체를 변증술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낮선 고장의 수령에 파묻힌 영혼의 눈’ 을 존재의 세계로 인도하는 기술 자체가 변증술이며, 그 경우 수학적 학문들은 변증술의 협조자 및 동조자들로 간주될 수 있다. 플라톤은 수학적 학문을 통해서 획득되는 지식을 의견과 인식 중간의 것으로서 ‘추론적 사고’ (dianoia)로 부르기도 한다.¹¹³⁾ 수학적 학문들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생활에의 실제적인 응용의 영역을 떠나 순수이성의 고지로 치솟게 하여 그것들 자신이 변증법적 방법에 훌륭히 이르게 한다.¹¹⁴⁾

(6) 실무교육

30세에서 5년 동안 변증술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15년 동안 실무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획득한 이론적 지식을 검토하고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경험적 지식들을 쌓는다. 그 기간을 거친 다음 50세가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의 제 1의 원리인 좋은 이데아를 직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하여 철학교육의 전 과정이 끝나게 된다.

(7) 동굴의 비유

플라톤은 지금까지 제시한 교육과정을 동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그 비유에 따르면, 철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동굴 속에 갇혀 오직 동굴 끝에 있는 벽만 쳐다보도록 묶여 있는 사람들로 비유될 수 있다. 그 동굴의 입구는 보이지 않는 길고 경사가 져있다. 이러한 지하 동굴 속 끝에 태어날 때부터 앉아 있는 사람들이¹¹⁵⁾ 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지와 목이 결박당해 있어 출입구 쪽으로 등을 돌린 채 뒤돌아 볼 수 없다. 그들 뒤에는 담¹¹⁶⁾이 있고 그 뒤로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불과 담 사이의 길로¹¹⁷⁾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동물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112) 같은 책, 511b.

113) 같은 책, 533d.

114) 임태평, 앞의 책, 299쪽.

115) 그들은 아래 그림에서 ab선에 앉아 있다, 이 그림은 애덤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애덤의 그림은 국가 514b. 주석 2를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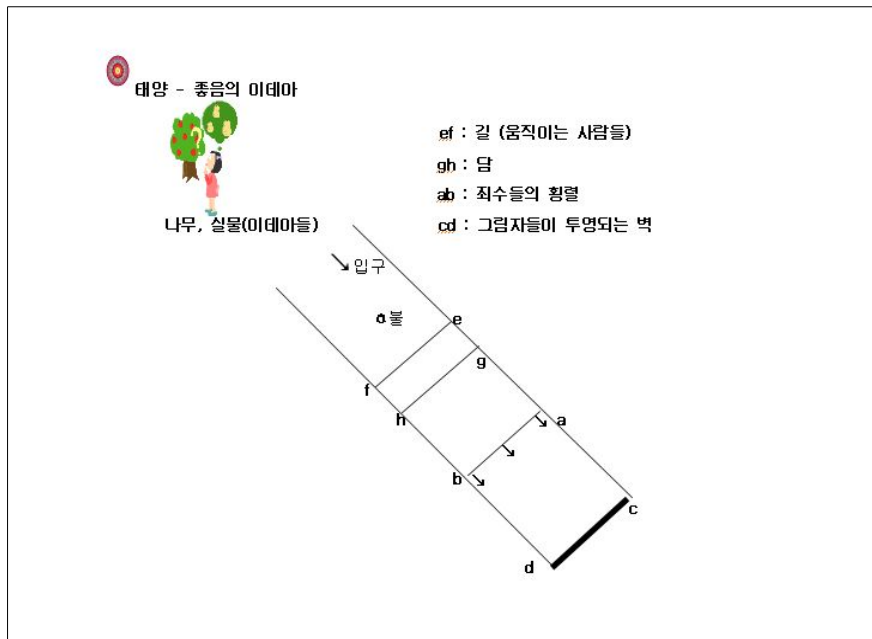
116) 그림에서 gh.

117) 그림에서 ef.

한 조각상들을 나르고 있다. 그리고 그 조각상들의 그림자가 동굴의 벽¹¹⁸⁾에 비춰진다. 동굴 밖에는 실재의 동물이나 사람들이 있으며 하늘에는 태양이 떠있다.

이 비유에서 태양은 좋음의 이데아를, 동굴 밖의 실재의 동물이나 사람은 동물이나 사람의 이데아를,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조각상들은 육체를 갖춘 실재의 동물이나 사람들을, 동굴 벽에 비추는 그 조각상들의 그림자는 실재의 동물이나 사람들의 겉모습을 상징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동굴 속의 사람들은 오직 실재의 동물이나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 전체라고 생각한다. 철학교육 과정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림자를 만들어 낸 원인이 되는 것들 전체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림자들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조각상들이 있어야 하고, 조각상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원형이 되는 이데아가 있어야 하며, 좋음의 이데아는 그것들의 존재의 원인으로 간주된다. 즉 동굴의 비유는 단순한 영상(image)의 세계에서 가시적인 형상들의 세계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좋음의 이데아(태양)의 직관으로 마음의 상승을 묘사한다. 이러한 상승은 곧 교육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¹¹⁹⁾

플라톤은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를 철저히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축쇄가 풀려서 동굴 안의 불을 볼 경우, 처음에는 고통스러워하며 눈부심 때문에 실물을 볼 수도 없다. 더욱이 불빛 자체를 보도록 강요한다면, 달아나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여 짜증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것들을 보게 되려면 빛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118) 그림에서 cd.

119) 입태평, 앞의 책, 260쪽.

제3장 교육 방법

지금까지 교육의 목적으로써의 덕들과 그 덕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교육에 동원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플라톤에서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는 『프로타고라스』에서부터 시작된다. 『프로타고라스』에서 다루어졌던 ‘덕이 교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메논』에서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덕은 교수될 수 있는가 아니면 훈련될 수 있는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덕이 교수될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덕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메논』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결론이 제시되지 못한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분명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덕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국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국가』에서 제시된 견해에 따르면 덕은 특정한 하나의 방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소질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함께 협력하여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덕이 생기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질

메논에서는 덕이 자연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주장이 간단하게 비판된다. 만일 덕이 자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소질이 있는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다치지 않도록 모든 사람과 격리시켜서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마치 수정란에서 태아가 성장하듯이 소질에 의해서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질도 필요하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소질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이다.

『국가』에서 수호자들은 그에 어울리는 소질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교육될 수 있다고 주장된다. 그들이 갖추고 태어나야 할 소질로는 먼저 기개적 소질이 있다. 기개적 소질은 그것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싸울 때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는 용맹스러우면서도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는 온순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애지적 소질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수호자들은 보조자와 완전한 수호자로 나뉜다. 완전한 수호자는 지혜의 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지혜의 덕을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인식을 획득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인식을 획득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호자는 반드시 철학의 소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철학적 소질은 단순히 애지적 소질이 아니라 형상이나 그것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론적인 학문들을 하는데 필요한 소질이다. 플라톤은 그 소질로 먼저 그러한 학문들을 좋아하는 소질을 든다. 그리고 그러한 소질이 있는 사람이 함께 가질 수 있는 소질로 진리를 좋아함, 거짓을 싫어함, 애지적임, 절제, 정의, 용기, 인색하지 않음, 호방함, 쉽게 배움, 기억력 등을 든다. 완전한 수호자는 지혜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위 보조자들의 일에 있어서도 그들 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소질에서 이미 가장 남자다워야 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운동이나 사냥 같은 것들도 좋아 하고 씩씩하고 잘 생겨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성질들은 철학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성질들, 그중에서도 배우는데 민첩한 소질과는 함께 갖추기 어려운 성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수호자의 소질을 갖춘 사람은 드물거나 있을 수 있다.

2. 교육

가. 음악 교육의 방법

음악 교육에 대한 논의는 시와 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는 그 내용과 형식을 나누고 음악은 가사와 선법과 리듬을 나누어서 논의한다. 플라톤은 음악 교육과 관련하여 형성, 각인, 주입, 모방¹²⁰⁾, 습관, 훈련 등의 방법론적 용어를 사용한다. 그 교육의 과정은 마치 장인이 재료에 어떤 형태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 듯이 영혼에 어떤 틀(typos)을 집어넣음으로써 영혼을 특정한 형태로 형성하는 과정이다.¹²¹⁾ 그때 그 형태를 집어넣는 방법은 ‘습관화를 통해서’ 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생기는 것은 좋은 습관(euethēia), 또는 좋은 성품이라 할 수 있다.

영혼에 어떤 습관이 생기게 할 때 필요한 것은 반복적 ‘훈련과 모방’이다.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모방해야 할 신이나 영웅이나 훌륭한 사람들의 좋은 말들을 좋은 형식의 시 통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읽히는 것, 좋은 가사와 좋은 화음과 좋은 리듬으로 이루어진 음악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 아름다운 미술품들이나 기술 제품들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항상 그러한 것들을 보게 하는 것, 좋은 놀이를 하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철학 교육의 방법

철학 교육은 먼저 수학적 학문 교육으로 시작한다. 그 교육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시작한다. 플라톤은 수학적 학문들을 어려서 부터 가르치되 그 교육은 강압적인 방식인 강의식(didache)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¹²²⁾ 놀이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세 부터 10년 동안은 그때 까지 따로따로 배웠던 그 학문들을 종합적으로 탐구하여 그 학문들간의 관련성과 동족성을 이해하기 까지 이르게 된다.¹²³⁾

수학적 네 학문 다음에는 변증술이 이루어진다. 수학적 네 학문과 변증술은 ‘가지(可知)적인 대상’¹²⁴⁾인 것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지만 전자는 교육재료로 가시적 천체들의 운동이라든지 가시적인 기하학적 도형들을 이용하는 반면, 변증술은 그러한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자는 그들이 고찰하려는 대상을 그것들의 배후에 있으며 그것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들로부터 이해하려 하지 않지만, 변증술은 그것들로부터 출발해서 그것들의

120) 『국가』, 396c.

121) 같은 책, 166c.

122) 같은 책, 536d.

123) 같은 책, 531d.

124) 이하에서 종종 나오는 ‘가지적 대상’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가시적 대상과 대립하는 의미로 썼다.

배후의 존재로 사유를 진행시킨다.

변증술의 교육은 수학적 학문의 종합적 연구 기간이 끝나는 30세 부터 5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수학적 학문들과는 달리 변증술은 어려서 공부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늦게 해야 한다. 그리고 놀이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되고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변증술 교육이 끝나는 35세 부터 전쟁이나 관직과 같은 공무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플라톤은 어느 정도 큰 아이들 때 부터 전쟁터에 끌고 다니면서 경험과 관찰로써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²⁵⁾ 그 목적은 경험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과 그들을 실무에 있어서 믿음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125) 같은 책, 467a.

3. 천운¹²⁶⁾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적당한 소질을 갖고 태어나야 하고 그 소질을 덕으로 성장시켜주는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¹²⁷⁾ 그리고 소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드물다. 플라톤은 당시 희랍에 존재하는 정치 제도들 중에서 훌륭한 소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철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정치 제도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다.¹²⁸⁾ 마치 오늘날 우수한 인재들이 순수 학문을 위한 공부 보다는 고시나 돈벌이를 위한 학문을 선택하는 것처럼,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철학을 하지 않는 이유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질과 그와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부, 체력, 가문들과 같은 것들을 든다.¹²⁹⁾ 그러한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철학을 하는 것을 가족이나 친척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철학의 길을 가도록 권하지 않고 오히려 막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식이 계속해서 철학을 하려고 하면 그에게 철학을 하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을 고발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한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정치 상황 속에서 국외로 추방당하였거나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어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질이 있는 사람이 철학을 하기는 어려우며 만일 그러한 특별한 계기 없이 철학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천운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메논』에서는 아테네 정치가들이 지혜도 없으면서 마치 점쟁이들처럼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로 천운이 제시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그러한 능력이 배워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이나 훈련에 의한 것인지 또는 천운에 의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¹³⁰⁾ 어떤 사람이 증거도 없이 계속해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은 운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생길 수 없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성격상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다.¹³¹⁾ 그런데 『국가』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교육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정의와 절제와 용기의 덕에 포함되어 있다. 그 올바른 판단은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보조수호자에 주입되는 것으로서의 올바른 판단이지만, 『메논』에서 올바른 판단은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에 관하여 아무 배운 바도 없으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올바른 판단이다. 국가에서는

126)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heou moiran.*(493a.) *theon tyche.*(492a.) *theias epipnoias.*(499c.) *theia tis tyche.*(592a.)

127) 같은 책, 491b.

128) 같은 책, 497b.

129) 같은 책, 400b-c.

130)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 외 2인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1, 1099b9.

131) 염수균, 앞의 논문, 159쪽.

그러한 능력이 덕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메논』의 천운은 원칙적으로 교육 될 수 없는 능력을 생기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국가』에서의 천운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4. 교수와 훈련

『메논』에서 메논은 ‘덕은 교수될 수 있는가 아니면 훈련될 수 있는가 아니면 소질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가’ 를 물었다.¹³²⁾ 교수와 훈련은 교육에 이용되는 방법들이다. 메논의 질문은 교수될 수 있는 것이면 훈련될 수 없는 것이고 훈련될 수 있는 것이면 교수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다. 메논이 교수의 대상과 훈련의 대상을 다르게 본 것은 교수의 대상을 지식으로만 좁혀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로타고라스』와 『메논』에서는 교수의 대상을 인식으로만 놓고 논의가 전개된다.¹³³⁾ 그렇지만 원래 여기에서 ‘교수’ 로 번역하는 didasko라는 말은 우리말 ‘가르침’ 처럼 모든 교육적 행위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국가에서는 ‘인식만이 교수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없으며 음악이나 체육뿐만 아니라, 철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모두 교수라는 말이 사용된다. 다만 ‘주입식 강의 형식’ 이라는 특수한 의미를 갖는 didache(강압적인 강의방식)로¹³⁴⁾는 철학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국가』에서 교수라는 말이 항상 동일한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넓은 의미로는 방법과 관계없이 인식과 올바른 판단을 포함한 모든 지식을 갖게 하는 과정을 교수로 표현한다. 그 경우에는 산파술적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인식을 갖게 하는 과정도 교수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올바른 판단을 주입식으로 갖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교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 좁은 의미에서는 오직 올바른 판단만 교수될 수 있고, 인식은 교수될 수 없다.

덕들 중에서 정의와 절제와 용기의 덕의 획득을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고 교수도 필요하다. 이때의 교수는 올바른 판단을 주입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수를 말한다. 지혜의 덕을 갖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교수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이때의 교수는 산파술적 방법에 의한 교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다. 교육을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수’ 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가의 주인을 눈먼 배의 주인에 비유하는 곳에서는 항해술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이때 항해술은 정치술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⁵⁾

『국가』에서는 철학 교육 포함되는 수학적 네 학문과 변증술의 교육에 대해 교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수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gymnajein(수련)으로써 앞에서 훈련으로 번역한 askein과 구별된다. 변증술 교육에 대해서는 그 말이 사용되지 않지만, 파르메니데스에서는 gymnajein(수련)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좋은 품성을 만드는 교육에 대해서는 훈련(askein)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철학 교육에 속하는 수학적 학문들과 변증술의 교육에 대해서는 수

132) 염수균, 앞의 논문, 170쪽.

133) 염수균, 앞의 논문, 170쪽.

134) 『국가』, 536d.

135) 같은 책, 488b.

련(gymnazein)이라는 말이 사용된다.¹³⁶⁾ 훈련의 목적은 신체나 영혼에 특정한 숙달된 능력을 새롭게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련의 목적은 정화에 있다. 또한 훈련은 습관적 요소를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반면에 수련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훈련’ 과 ‘수련’ 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⁷⁾

136) 같은 책, 503e, 526b, 539d.

137) 염수균. 「플라톤의 『국가』에서 덕의 교육 방법」, 『범한철학』 21, 2000, 274쪽.

5. 돌려 이끔과 정화와 모방

『국가』에서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그것과의 접촉(ephaptesthai)¹³⁸⁾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으로 주장된다. 또한 그것을 봄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말해지기도 한다.¹³⁹⁾ 물론 여기에서의 봄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통한 봄이다. 플라톤은 만일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것들을 모방하고 동화된다고 주장한다. 존재는 신적인 것이고 조화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보는 영혼은 조화롭고 신적인¹⁴⁰⁾ 영혼이 된다. 따라서 철학 교육에서도 모방이 교육방법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¹⁴¹⁾ 그렇지만 음악 교육에서의 모방은 교육자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철학에서의 모방은 존재를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에 다가 가야 한다. 따라서 인식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은 그것에 다가가는 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다른 덕들은 특정한 형태를 영혼 속에 주입시켜서 생기는 것이지만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영혼을 그 대상으로 다가가게 해서 그 대상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교육자가 하는 일은 바로 그 대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좋음의 이데아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좋음의 이데아로부터 멀게 만들고 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 요인은 생성적인 것들이고,¹⁴²⁾ 영혼이 생성으로부터 존재로 올라가는 과정이 바로 철학이다.¹⁴³⁾ 철학 교육은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는 생성적인 것을 제거함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들로 영혼을 이끌고 감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이끔은 단순한 이끔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 이끔(periaōgē)’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부분들 중에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부분인 이성적인 부분을 정화하고¹⁴⁴⁾ 다시 점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138) 『국가』, 484b, 490b, 511b.

139) 같은 책, 517c, 540a.

140) 같은 책, 500c.

141) R. C. Rodge, *Plato's Theory of Education*, Russell & Russell, 1970, 131쪽; 재인용, 염수균, 앞의 논문, 271쪽.

142) 『국가』, 518d-519b.

143) 같은 책, 521c.

144) 같은 책, 527d.

결 론

플라톤에게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탁월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탁월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교육이다. 『국가』에서 다루어지는 교육은 국가의 훌륭한 수호자와 통치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런데 그 교육은 전술이나 행정술과 같이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의, 절제, 용기, 지혜 등과 같은 덕을 갖추주는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플라톤은 완전하게 훌륭한 국가는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 있고 정의롭다고 본다. 그리고 덕들을 국가의 구성원들의 일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개인의 영혼도 국가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한다. 플라톤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생산자와 수호자, 통치자, 이렇게 세부분으로 구분되듯이 개인의 영혼도 욕구적인 부분, 헤아리는 부분, 걱정적인(기개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영혼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인식이 바로 헤아리는 부분이 갖는 지혜의 덕이다. 그리고 걱정적인 부분이 두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성에 의해서 지시된 것을 끝까지 보존할 경우, 그 사람은 용기를 갖는다. 용기의 덕은 바로 그 올바른 판단의 보존 능력이다. 절제 있는 사람은 영혼이 헤아리는 부분의 요구에 따라서 행위하는 사람이다. 절제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의 일치로 규정되며 영혼의 부분들 사이의 화합과 우정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플라톤은 그러한 덕들이 생기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영혼의 부분들이 각각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다른 부분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그것을 정의의 덕으로 정한다.

플라톤이 네 가지의 덕을 갖추기 위해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은 통치자를 포함해서 수호자 일반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그 교육과정은 크게 기본교육 과정과 고등교육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교육 과정은 수호자 일반을 대상으로 정의, 절제, 용기를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이며 주로 음악과 체육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교육 과정은 지혜의 덕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이며, 통치자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철학 교육으로 이뤄졌다. 철학 교육은 주로 수학과 기하학 같은 수학적 학문들과 변증술로 구성된다.

음악 교육은 말과 학문으로써 영혼의 헤아리는 부분을 일깨워주고 양육하며, 걱정적인 부분은 화음과 리듬으로써 이완시켜 부드럽게 만든다. 그리고 체육은 걱정적인 부분을 성장시키며 음악 교육을 통해서 영혼이 약해지는 것을 막는다. 음악과 체육 교육은 영혼의 두 부분을 긴장시키고 이완시키면서 조화롭게 발전시켜 그것들을 갖고 있는 영혼으로 하여금 절제 있고 정의롭고 용기 있는 영혼으로 만든다. 교육자가 원하는 성품을 갖추주는 기초 교육과정은 교육자가 원하는 형태를 강압적으로 영혼에 각인시켜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주입식 교수를 포함해서 모방과 반복적인 훈련이 주

로 사용된다.

음악과 체육 교육을 통해 훌륭한 성품이 갖춰질 경우, 용기와 절제의 덕이 있으며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교육만으로 아직 지혜로운 사람이 되진 못한다. 철학 교육은 지혜의 덕을 갖춰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의 덕의 핵심적 요소가 바로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다. 따라서 철학 교육의 목적은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의 획득이다.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 과정은 그 인식을 영혼 속에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식 능력이 좋음의 이데아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영혼을 좋음의 이데아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이 플라톤의 『국가』에서 말하는 교육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바로 철학이고, 철학을 위한 학문이 수학과 기하학, 천문학, 화성학 등 수학적 네 학문과 변증술이다. 그중에서 수학적 네 과목은 본 과목인 변증술을 하기 위한 예비 교육이다. 예비적 학문으로 드는 수학적 네 과목은 모두 이성으로써 가지적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라톤은 그러한 학문들이 영혼을 존재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학적 학문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되, 그 교육은 강압적인 방식인 강의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놀이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학적 네 학문과 변증술은 가지적인 것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지만 수학적 네 학문은 교육재료로 천체들의 운동이라든지 기하학적 도형과 같은 가지적인 대상들을 이용하지만, 변증술은 그러한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변증술의 교육은 수학적 학문의 종합적 연구 기간이 끝나는 30세 부터 5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플라톤에게 교육의 목적은 덕의 획득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갖게 하는 철학 교육 과정은 영혼의 이성적 부분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어떤 것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에 다가가야 한다. 따라서 인식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은 그것에 다가가는 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다른 덕들은 특정한 형태를 영혼 속에 주입시켜서 생기는 것이지만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영혼을 그 대상으로 다가가게 해서 그 대상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교육자가 하는 일은 바로 그 대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이끔은 단순한 이끔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 이끔(peritagōg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영혼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수학적 학문과 변증술을 통한 수련이 요구된다. 그렇게 해서 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게 하는 과정은 산파술적 방법을 통한 교수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신득렬, 『교육사상가 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 임태평, 『플라톤 철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0.
-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 외 2인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스, 2001.
- 데이비드 L, 레슬리 스티븐슨 외, 박중서 역,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갈라파고스, 2006.
- 미하엘 보르트, 한석환 역, 『철학자 플라톤』, 이학사, 2003.
- 플라톤, 박종현 역주, 『플라톤의 국가(政體)·정체』, (개정증보판), 서광사, 2005.
- 플라톤, 박종현 역, 『메논·파이돈·국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R.L.네틀쉽, 김안중 역, 『플라톤의 교육론』, 서광사, 1989.

2. 논문

- 강현경, 「플라톤 윤리사상의 형성과정과 덕」, 동아대교육대학원, 1998.
- 권태선, 「플라톤의 이상주의 교육론, 대구가톨릭대학교」, 1994.
- 박금선, 「플라톤의 교육사상 : 국가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1992.
- 염수균, 「플라톤에 있어서 탁월성의 교육가능성에 관한 연구 - 『프로타고라스』 『메논』 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염수균, 「플라톤의 『국가』에서 덕의 교육 방법」, 『범한철학』 21, 2000. pp.251-279.
- 최우영,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타난 도덕교육론」, 계명대학교, 1994.
- 최정근, 「플라톤의 이상국가론과 교육사상」, 『새마을연구』, 한국교원대학, 1991.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도덕윤리교육	학 번	20068263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미경	한문: 金美敬	영문: Kim, Mikyong		
주 소	광주시 북구 두암동 현대 APT 2차 202동 1808호				
연락처	010-4605-7610		E-MAIL:kimpd@gfn.or.kr		
논문제목	한글 :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교육론 분석 영문 : Analysis of the Theory of Education in Plato's <i>Republic</i>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2 년 7 월 6 일

저작자: 김 미 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